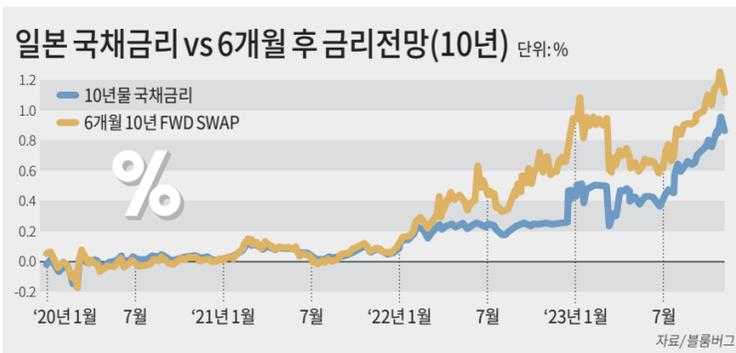


# ‘글로벌 마이너스금리 채권시대’ 막내린다... 8개까지 급감

美 등 주요국 금리인상에 사라져 블룸버그 채권지수 모든 구성종목 13년 만에 처음 0% 이상 금리 기록  
 日은행, 수익률 곡선관리 조정 나서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 시대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고됐다. 한때 4000여개에 달했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이제 전 세계에 열 개도 남지 않았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제로(0) 금리 미만에서 거래되는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지난 2020년 말 4000여개에서 이달 8일에는 8개까지 급감했다. 지난 1일에는 만기가 1년 남은 일본 국채 1종만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이후 스웨덴과 스위스, 일본 등이 합류하며 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가 본격 열렸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유럽과 영국 등의 채권을 포함한 4600개 이상의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갔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서 나서면서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에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2021년 말 2296

개에서 2022년 12월 49개까지 큰 폭으로 줄었다. 건축 장비와 움직임에 올해 1월 4일에는 단 하루에 그치긴 했지만 13년 만에 처음으로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지수의 모든 구성종목이 0% 이상의 금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작년 말부터 일본은행(BOJ)이 수익률 곡선 관리(YCC) 조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YCC란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한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금리가 오르는 효과를 내게 된다.

TD증권은 “일본은행의 10년 국채금리 1% 상한선 유연화 조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종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20년 12월 11일에 18조4000억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던 블룸버그 마이

너스 금리 채권지수 총액은 올해 11월 기준 1747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요 투자은행(IB)이나 시장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거래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이 내년 1분기 중에 정책금리를 -0.1%에서 인상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박승민 연구원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마이너스금리 채권이 사라지는 현상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글로벌 부채부담 증가와 경기 둔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사기 상장’ 파두... 주관사 책임론 불가피

상장 진행되던 2분기, 국내 매출 0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혔던 팍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상장 3개월만에 추락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원에 그치며 상장 당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15%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 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장 주관사와 한국거래소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두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이 3억2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감했다. 영업손실은 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5% 확대됐다. 특히 파두의 2분기 국내 매출은 0원, 해외에서만 5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52억원에 달했다.

가장 큰 논란은 파두가 이미 2분기 실적 결산을 마친 이후 상장했다는 사실이다. 파두는 지난 8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과 공식 기업설명회(IR) 등은 7월 말부터 진행됐지만 당시 파두는 2분기 국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두가 제시한 올해 예상 매출은

1203억원이지만 실제 1~3분기 누적 매출은 180억원에 그쳤다. 2024년 매출액은 3715억원, 2025년 매출액은 6195억을 달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놴다. 2025년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856억원에 달한다. 상장을 위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9일 코스닥시장에서 파두는 하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10일에도 21.93% 급락하며 1만8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월 7일 상장 당시 1조5000억원 대어로 증시에 입성해 한때 장중 4만7100원까지 올랐던 파두의 시가총액은 현재 9235억원으로 추락한 상태다.

투자자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사기 상장’ ‘대국민 사기극’이란 지적도 나온다. 회사측의 미흡한 대응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파두 측은 실적 발표 이후 IR을 통해 SSD 메모리 산업 시장 부진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파두이시호 대표는 IR을 통해 “메모리 산업은 지난 10년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파두는 신생 기업으로서 불안정한 환경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두의 상장 예비심사를 맡은 한국거래소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책임 공방을 피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2차전지株 급등락 반복... “수익성 하락 예상”

공매도 금지 후 관심 ‘에코프로’ 집중  
 개미들 하락방어 vs 고평가 논란 ‘여전’  
 전기차 성장 둔화·中 배터리 공급과잉

〈공매도 전면 중단 이후 2차전지 종목 주가 현황〉

종목	11월 6일 주가	11월 10일 주가
에코프로	82만8000원(상한가)	68만5000원(-6.04%)
에코프로비엠	29만9000원(상한가)	23만3000원(-6.24%)
LG에너지솔루션	49만3500원(+22.76%)	41만1000원(-4.20%)
포스코퓨처엠	34만9500원(상한가)	27만7000원(-4.97%)

/한국거래소

공매도 한시적 중단 결정으로 ‘반짝’ 상승했던 2차전지주들이 하루만에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업황과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증권가에서도 기대감을 낮추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중지가 시작됐던 지난주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6일에는 상한가, 7일에는 3.74% 올랐다가 8일부터는 하락세를 타면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0일까지 20.25%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도 6일에는 폭등했지만 7일부터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각각 22.07%, 16.71%, 20.74%씩 급락했다.

앞서 공매도가 2차전지주에 몰리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2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었다. 특히 에코프로는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평가 논란에도 황제주에 등극한 바 있다. 지난 7월 26일 당시 장중 최고 153만9000원까지 터치했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122만8000원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갔고,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서 하방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늘었다.

공매도 전면 중지 이후에도 관심은 에코프로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급락세 역시 타 2차전지 종목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지만, 에코프로는 7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개미들의 하락 방어 의지에도 고평가 논란은 유지되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에 들어서 기관과 개인은 에코프로를 각각 65억원, 868억원씩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063억원을 팔아치웠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개인과 정반대로 여전히 반도체 ‘Long’(매수), 2차전지 ‘Short’(매도)를 고수하는 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A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에코프로의 목표가를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4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2차전

지 투자자 위주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박순현을 지키는 모임’ 회원 일부는 해당 애널리스트의 출근길을 쫓아가 비난하기도 했다. 그들은 연구원을 가로 막고 “돈 얼마 받았냐”, “매국노” 등의 언어적·물리적인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차전지 업황의 전망도 밝지 않아 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민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은 침투율 상승과 보조금 정책 한계로 인해 세계 전기차 수요성장 둔화가 시작됐다”며 “중국 배터리산업의 공급과잉으로 밸류체인 전체적인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이던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8월을 정점으로 약세로 전환됐고, 주가 하락의 이유는 성장 둔화”라며 “향후 2~3년간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악재에도 어닝서프라이즈... 추가반등 ‘기대’

metro 관심종목  
 카카오

올 3분기 매출 전년비 16.3% 증가  
 컨센서스 영업이익 1274억 상회 실적

3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부진했던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데다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진 사법 리스크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주가 반등세가 유지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카카오의 주가는 4만565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1076억원을 매각하는 등 많은 물량을 내던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448억원가량 매입하는 등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카카오의 주가는 시세조종 의혹과 갑질, 독과점 논란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그러다가 이달 들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등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으로 20.77% 상승했다. 지난 9일 카카오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2조1609억원, 영업이익

익은 같은 기간 6.7% 감소한 14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인 영업이익 1274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특비즈가 두 자리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뮤직부문을 중심으로 게임 제외 콘텐츠 사업이 고성장한 점에 힘입어 매출이 성장했다”며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했지만 자회사 구조조정 비용이 약 250억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에스엠 연결편입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0% 성장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반등하긴 했으나 카카오의 주가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 속에 있어 200만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NH투자증권 통계(자사 고객 대상)에 따르면 카카오 투자자의 100%가 손실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단가는 10만1147원, 평균 수익률은 -56.82%에 달한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카카오 경영 복귀를 선언했고, 외부 감시 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카카오의 쇄신 작업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